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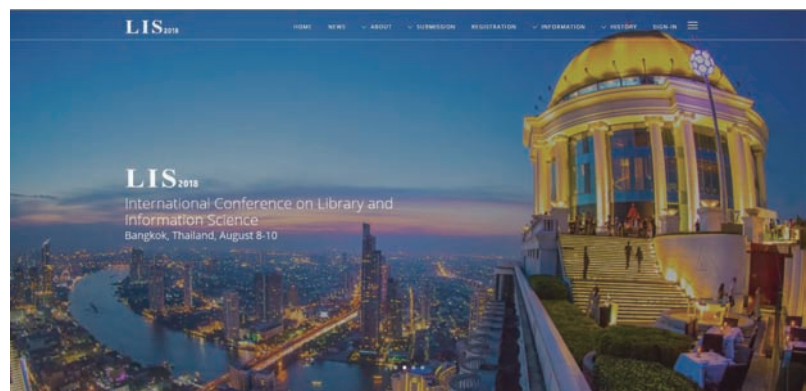
LIS 2018(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8) 참관기

조윤희 _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도전하다, 다시 처음처럼!

도서관에 발을 들인 지 30년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관종은 넘나들었지만, 이탈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 온 셈이다. 개인의 시간으로 보면 인생에게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도서관 현장에 머무르고 있다. 나에게 도서관은 수많은 희로애락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 글 또한 특별한 전문적 내용이 아닌 소소한 사서의 도전 이야기이다.

2013년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개관 준비에 합류하여 의학도서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인생 2막의 출발점이었다. 의학도서관 사서로서 스스로 세운 나의 임무는 의학 연구자나 임상전문가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건강정보에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서비스가 올해 Korea OpenMed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Korea OpenMed 서비스를 홍보하고, 선진 전문도서관의 콘텐츠 운영 및 서비스 현황 정보 수집을 위해 도전한 것이 LIS 2018 국제회의 참가였다.



〈출처: LIS 2018 누리집〉 <http://soci-science.org/lis2018>



국제회의의 참가 준비부터 참가 중에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담백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현장 사서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누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제회의의 참가 경험을 지면으로 공유한다.

LIS 2018 참가 배경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보건의료행정타운인 오송(청주시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2014년 개관 시부터 전통적 도서관 서비스와 더불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에 주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공간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의과학 전문정보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과학 학술논문 국가서지 콘텐츠로 올해 드디어 10년 발행분인 30만 건을 넘기면서 이용활성화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국내 의과학 전문가나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서관 관련 국제행사 참가도 함께 검토되었다. 아쉽게도 IFLA WLIC 2018 및 주요 도서관 관련 국제회의는 이미 자료제출 기한이 마감되었고, 고심하던 차에 눈에 번쩍 뜨인 것이 LIS 2018 국제회의였다.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로 '18년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자, 교육자, 도서관 현장 사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연구성과 공유와 네트워크 구성, 미래 협력을 위한 국제 파트너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있었다. LIS 2018 발표주제도 문헌정보학 전반과 빅데이터와 오픈 사이언스, 정보기술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었다.

우선, LIS 2018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포스터 및 구두 발표 제출 양식을 다운받았다. 하지만 쉽게 아이디어를 정리하지 못해 2주 이상 시간을 흘려보냈다. 어렵게 마감일 임박해서야 우리나라 의과학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Korea OpenMed 콘텐츠를 소개하는 포스터 초록 작성을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모든 기다림이 그렇듯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에 더 많은 마음이 쓰이듯 2주가 흐른 후 반가운 승인 및 초청메일이 도착하였다.

☆ [LIS 2018] Acceptance Notification and Invitation Letter (#1124)

보낸사람 "iclis.conf@gmail.com" <iclis.conf@gmail.com>

받은사람 Yoonhee Cho <yhcho519@korea.kr>

보낸날짜 2018년 04월 12일 12시 53분 37초

Acceptance Notification and Invitation Letter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2018)
Bangkok, Thailand
August 8-10, 2018

Paper Number: 1124
Paper Title: Trend Analysis of Scientific Articles based on Korea OpenMed
Author(s): Yoonhee Cho, Eungyu Lee
Presentation: Poster Presentation

Dear Yoonhee Cho,

It is our pleasure to inform you that your submission has passed the review process and been accepted by the LIS 2018. For your information, all submissions to the conference have been reviewed by at least two independent peers for technical merit and content. The Program Committe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attend the LIS 2018 at Bangkok, Thailand.

We kindly ask you to prepare and upload your final version of manuscript together with your registration before the deadline. Please note that the deadline for uploading the final version of your manuscript is June 10, 2018, and the early bird registration deadline is May 31, 2018. Please log in the conference management system (CMS) to upload your final manuscript and pay registration fee. You can find all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nference website.
Website: <http://soci-science.org/lis>
CMS: <https://my-ecase.org/lis>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iclis.conf@gmail.com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ribution. We do hope to welcome you at the conference.

Yours sincerely,

LIS 2018 Program Committee
<http://soci-science.org/lis>

(승인 및 초청메일)

LIS 2018 참가후기

LIS 2018 국제회의는 LIS(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BITE(Business, Information, Tourism, and Economics)/IConEGS(Education and Global Studies) 등 세 분야의 통합 국제회의로 31개국에서 225명의 연구자들이 원고를 제출, 76개 페이지가 승인되어, 17개 발표 세션과 3개의 포스터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독일 등 27개국 86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3일간의 활기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개회식과 환영사, 초청강연자 발표와 함께 우수 논문 10편에 대한 시상과 축하공연을 진행한 후 주제별로 세션을 나누어 발표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금요일 오전 포스터 세션3에서 “Trend Analysis of Scholarly Articles and Journals Based on Korea OpenMed”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Korea OpenMed는 질병관리본부(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오픈액세스·오픈사이언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 사업으로 근거중심 연구 및 임상 연구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의과학 서지초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26만여 건의 의과학 학술논문을 분석하여 형태별, 주제별 및 저자키워드 중심 연구동향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홍보 포스터와 세션 전체 발표 후 연구자들과 함께〉

Korea OpenMed는 194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모든 과학자료의 소급 구축과 향후 발행될 최신자료 콘텐츠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학술논문서지초록 콘텐츠의 90% 이상을 전 세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향후계획도 소개하였다.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에서 온 사서들, 아직 대학원에서 수학중인 학생들과도 서로 준비해 온 발표 자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 자국의 도서관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용은 다르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과 도서관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다.

깊은 인상을 받았던 몇 개의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로 걸프만 연안 아라비아반도 동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우리나라 경기도 면적 정도)에서 2018년 4월에 개관한 카타르국립도서관 사례이다. 영국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과 파트너십으로 아랍 및 이슬람역사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2014년 디지털도서관을 먼저 개관하였다. 도서관 등록 이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해외 전자자원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원에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한다. 현재 80만 권 이상의 인쇄자료, 50만종 이상의 전자책, 그밖에 정기간행물, 신문, 특별 소장품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을 ‘제3의 장소’라고

명명하고, 카타르 국립도서관은 정부의 공립대학, 국제대학 유치를 중심으로 ‘교육도시(Education City)’ 지식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카타르 국립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 연구수준의 대학도서관 및 디지털시대를 적합한 중앙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카타르 독서문화, 국민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지식기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도시의 심장으로 대학, 연구소, 민간, 일반국민에게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 독서그룹, 어학강좌, 각종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Qatar 국립도서관 전경 및 내부사진〉

두 번째로 터키 이스탄불 도서관의 위기관리 사례이다. 도서관(library), 아카이브(archives), 박물관(museums) 등 정보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보문화 센터로 귀중한 많은 서적, 희귀 작품 등 중요한 수집품을 보관하여 보존하고 있다. 도서관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비상계획(emergency planning)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비상계획(emergency plan)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적 관리조치(control measures)로 안전하지 않는 행동, 상태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비상사태 혹은 재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터키 지방정부의 정보센터 및 문화센터의 위험평가 및 긴급계획으로 확대되었다. 작업장 보건 및 안전절차, 위험 및 비상관리 원칙의 범위 내에서 이스탄불 광역자치도 관리 하에 위험 및 응급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

ATATÜRK KİTAPLIĞI 1. KAT ACİL EYLEM PLANI

YANGIN

BÜYÜK ÇAPLI YANGIN

- Yangını gören personel paniğe kapılmadan en yakın yangın butonuna basar.
- Sesli olarak "YANGIN VAR" diye seslenir.
- Yangın alarmı alan komanda merkez Acil durum müdahale birimlerine (İtfaiye, Ambulans vb.) durumu bildirir.
- Acil durum anonsunu duyan personel seri ve hızlı bir şekilde toplanma noktasına gider.
- Acil durum ekibinde olanlar gerekli kişisel koruyucu donanımını giyerek hazır şekilde bekler.
- Operasyon sorumlusunun talimatıyla ADMB (İtfaiye, Sivil Savunma vb.) gelene kadar yangını kontrol altında tutmaya çalışır.

KÜÇÜK ÇAPLI YANGIN

- Yangını gören personel yangın butonuna basarak yangın durumunu bildirir.
- Sesli olarak "YANGIN VAR" diye seslenir. Yangın küçük çaplı ise yangını kendini riskle atmeyecek şekilde yangın tüpü/hortum makara sistemi ile yangına müdahale eder.
- Durumu şifareyle bildirir.

Acil Durumlar	Acil Durum Telefonları
• Yangın	112 (Bölge Müdürlüğü) (0212) 481 19 00
• Deprem	110 (İl Özel İdare) (0212) 522 37 37
• Ses/Şu Baskını	155 (İl Çeşitli Birimler) (0212) 414 20 00
• Sabotaj, Bombalama, Terör	Elektrik İdaresi (0212) 414 30 00
• Yanarılma ve Ölümüne İy Kazanlar	İşleri (0212) 465 30 00
• İhtisastan gelen	İhtisastan (0212) 373 30 00

Acil Durum Müdahale Ekibi	MÜDAHALE NOKTASI	KİTAPLIK	LİBRERİ

DEPREM

- Sarsıntıyı farkeden personel "DEPREM OLUYOR" diye seslenir.
- Sarsıntıyı hissedilen/duyan personel sakin ve seri bir şekilde asansörleri kullanmadan merdivenlerden toplanma noktasına gider.
- Toplanma yerinde toplanıldıktan sonra binada kimse kalıp kalmadığını öğrenmek için Kurtarma ekibi ve Söndürme ekibi binaya girerek tüm odaları kontrol eder.
- Küçük çaplı bir yangın var ise söndürme ekibi müdahale ederek yangını söndürür.
- Yangın büyük çaplı ise ADMB gelene kadar yangını kontrol altında tutar.
- Binada hafif sarsıntı var ise kurtarma ekibi yaralıyı güvenli bölgeye taşıyarak ilk yardım ekibine bilgi vererek ilk yardım ekibi müdahale eder.
- Binada kimsenin kalmadığından emin olduktan sonra müdahale birimleri binayı terk eder.

İLK YARDIM

- İşyeri hekimi olay yerine yakınsa müdahale yapar, gerekirse sevk eder.
- Olay ilk gören kişi Kumanda Merkezine (İletişim) bilgi verir.
- İletişim 112 Hızlı Acil Servis'inin olay mahalline çağırır. İletişim ayrıca ilgili iç ve dış birimlere gerekli bilgiyi verir.

112 Acil Servis Gelene Kadar:

- Kazazedeye bir kişi refakat eder.
- Kendi güvenliği risk'e atarak davranışlardan kaçınır.
- Tehlike devam ediyorsa yaralıyı güvenli alana taşır.
- Çevrede bulunan kişiler için tehlike varsa onları uyarır.
- Yaralının temel yaşam bulgularını (bilinç, solunum, nabız) kontrol eder.
- Koparıp uzuv varsa buz içerisinde uygun şekilde muhafaza edilir.
- Eğer vücudta kimyasal döküldüyse 15 dakika boyunca dökülen yeri bol suyun altına tutar ve derhal kirilenmiş giysiyi çıkarır.

ACİL KAÇIŞ BÖLGELERİ VE MÜDAHALE EKİPMANLARININ YERLERİ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 Atatürk Library 비상 계획〉

마지막으로 미래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례 소개이다.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건물)과 가상공간을 통하여 자료의 물리적, 디지털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작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자가 직접 책을 읽거나 동영상 보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뇌에 직접 적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탐색해보는 시도가 소개되었다. 누구나 원하는 정보 모듈을 로드함으로써 특정 지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적재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수집하면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소개했다. 도서관 사용자들의 미래 학습은 뇌의 신호나 뇌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책, 비디오 등 학습보조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즉각적 학습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즉각적 학습법은 도서관이 마인드 매핑, 뇌 자극을 위한 보조기기가 있는 인터넷 연결이나 스마트 폰과 연결하는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발제자의 발표가 인상 깊었고,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발표였다.



〈DARPA의 RAM Replay 사례〉

이번 국제회의의 참석을 통하여 서로 다른 관점의 다양한 주제 발표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었던 점과 각국 사서들과 초면에도 공통의 관심사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점에 신기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필자에게는 2018년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사건으로 좋은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



〈LIS 2018 Proceedings CD 및 참가증서〉

방콕 문화 체험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기네스북 등재 도시로, 그 이름이 ‘끄룽 텡 마하나컨 보원 랏따나꼬씬...’으로 무려 70자에 이른다. ‘위대한 천사의 도시,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곳, 침범할 수 없는 땅, 아홉 개의 고귀한 보석을 가진 세계의 웅대한 수도, 신이 사는 곳을 닮은 왕궁이 많은 즐거운 도시, 인드라 신의 도시’ 라고 한다.

컨퍼런스 마치고 방문했던 몇몇 장소들은 도시의 이름에 걸맞았다. 왕궁은 신이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연결된 듯 그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느껴졌다. 해진 후 짜오프라하강에서 바라보는 왓아룬은 그대로 한 장의 그림엽서로도 손색이 없었다.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쇼핑이 가능한 아시아틱도 기억에 남는 추억의 장소이다.

태국의 역사가 그대로 느껴졌던 전통 공연인 시암 나라밋 쇼는 공연 규모와 시설, 콘텐츠의 구성과 실현이 환상적이었다. 공연시작과 함께 한국어 자막은 참 반가웠고, 우리나라 국격이 부듯하게 느껴졌다. 7세기부터 시작된 태국의 역사를 대서사시로 구성, 역사와 각 지방의 생활과 축제, 종교 의식 등을 한 눈에 보고, 느낄 수 있게 구성된 화려한 특수효과와 첨단기술의 접목은 지루함 없이 한 순간에 공연이 마무리 된 느낌이었다.



〈왓아룬 야경과 아시아틱 방문 사진〉

방콕 방문시기는 덥고, 비가 많은 우기였으나 컨퍼런스 일정 동안 좋은 날씨 덕분에 공식일정 이후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에서 눈을 즐겁게 하는 멋진 쇼까지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였다. 다만, 방콕도 우리나라 서울을 방불케 하는 교통지

옥이었다. 출퇴근 시간 방콕시내는 주차장이었고, 지하철은 줄을 서서 3~4개를 보내야 탈 수 있었다. 방콕에 머무는 동안 쉽게 택시로 이동하려고 생각했던 필자는 교통수단 적응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덕분에 짜오프라하강을 건너는 수상보트, 지상철 BTS, 지하철 MTS, 택시, 툭툭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감사와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도 일상에서 순위가 밀리면 소홀하게 되듯이 고질적인 습관인 충분한 준비 부족은 이번 국제회의 참가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 중 특별히 좀 더 과감하게 도전했어야 했는데 좋은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반성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국제회의에서 만난 사서들과 연구자들은 모두 따뜻하고 개방적이었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준비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듯 느껴졌다. 서로 머무는 곳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된 주제 안에서 동료애가 느껴졌다. 언어에 대한 장벽은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 지나친 나의 걱정이 마음을 움츠리게 하였고, 머뭇거리게 하는 장벽이었다.

이번 국제회의 참가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다시 크고 거창하게 나의 도전 목표와 임무를 새겨본다.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생산 할 인류의 가교역할을 하는 창의적 공간인 도서관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서로 그 직업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의과학분야 연구자의 지적산물인 연구성과 논문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구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우리 센터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Korea OpenMed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성실하게 작업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합쳐진 결과물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서나마 국제회의의 참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KSLA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